광명사 52년, 새마음불교운동으로 성장

10월 10일, 창립기념법회 및 광명예술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969년 부산초량 가정집서출발
1만여 불자 수용 신행도량 서원
1982년 삼광사 불사 원력 초석
대중 호흡하며 현대 포교 모색

대한불교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10월 10일 지관전에서 창립52주년을 기념하는 창립법회 및 광명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상월원각대조사의 창건 이념을 기리고 정법도량을 향한 미래 의지를 강조했다.

법회에는 주지 춘광 스님과 울산 정광사 주지 화산 스님, 부산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김해 해성사 주지 월도 스님을 비롯해 이창욱 신도회장, 정미영 금정구청 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타종 △개회선언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봉독 △국운융창기원 △임명장 수여 △연혁보고 △기념사 △청법가 및 입정 △법문 △축사 △축가 △내빈소개 △관음정진 △발원문 순으로 진행됐다.

광명예술제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현악4중주 연주와 박윤정 소리코리아 대표의 국악 공연, 남성 성악가로 구성된 해피앙상블의 무대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아울러 광명사 어린이회와 광명합창단 등 신도들의 무대도 이어졌다.

주지 춘광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 1970년대 새마음불교운동을 전개했다. 오늘날 우리는 새마음불교운동을 계승 발전시켜 마음이 성장하도록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법도량을 만들어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속에서 자비 실천을 행하고 정진해 수행의 양 날개가 고루 균형을 이뤄 이 시대에 맞는 포교와 불교운동을 전개해 나아가자. 앞으로 계승 · 발전을 위해 성역화 불사를 진행하고 100년, 1000년을 바라보며 정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월도 스님은 법문에서 "상월원각대조사님은 도심포교의 미래를 보고 광명사와 삼광사를 세우셨다. 광명사는 부산경남에서 귀감이 되는 도량으로 발전했다"며 "부산이라는 곳에 왜 광명사를 터로 주셨는지는 역사가 말해준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천태종 광명사가 10월 10일 지관전에서 창립 52주년을 기념하는 창립법회 및 광명예술제를 개최했다.

광명사의 역사는 1969년 10월 15일 부산시 동구 좌천동 김정숙 신도의 가정집에서 개최한 부산신도회 창립법회가 그 시작이다. 이후 1970년 9월 1일 대한불교천태종 부산 지부로 지정되고, 이춘상 불자가 초대 지부감으로 임명됐다.

1971년 10월 27일 상월원각대조사는 부산 초량동 소재 교육회관 법회에 참석해 "부산에 천태사상이 구름과 같이 크게 흥할 것"을 증명하고 "동시에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불교회관과 대가람을 세울 것"을 대중에게 부촉했다.

1973년 10월 상월원각대조사는 직접 지금의 광명사가 될 도량(당시 관음사)을 살펴보고 관음사 법당과 부지 매입을 허락했다. 1973년 12월 5일 부산시 장전동 관음사 법당을 매입한 후, 광명사로 이름을 변경했고 삼광사 도량 건립의 초석도 마련했다. 1982년 12월 31일 부산 진구에 위치한 지금의 삼광사 부지 3만 5000평을 매입했다.

현재 광명사는 금정구지회, 동래구지회, 북구지회로 신도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단체는 다도회, 원회, 광명합창단, 봉사회, 금강회, 관음회, 어린이회 등이 있다.

또 2021년 법화산림법회, 특별법회, '호국 · 순국선열 위령 천도대법회',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 행복나눔법회'를 봉행하며 대중과 함께하고, 현대적 불교 포교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제1회 어린이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 성료

10월 10일, 내원정사에서 100여 명의 어린이 불제자 탄생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 이하 조계종부산연합회)가 10월 10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생활관에서 '제1회 어린이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어린이 수계법회를 통해 불교를 통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포교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마련한 수계법회에는 전계대화상 원허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과 갈마아사리 목종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교수아사리 만초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조계종부산연합회 소속 스님들을 비롯해 홍법사, 혜원정사, 대광명사, 관음사, 무진선원에서 참석한 어린이 100여 명이 동참했다.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가 10월 10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생활관에서 '제1회 어린이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수계의식 모습.

법회는 △대종오타 △육법공양 △개식 △거향찬 △청사 △개도 △참회 △관정 △귀의 △선계상 △발원 및 계첩수여 △법어 및 인사말씀 △회향 △회향게 △폐식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어린이들은 직접 부처님께 육법공양을 올렸고 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십바라밀 문양의 티셔츠를 입고 수계를 받았다. 수계 어린이들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오계-첫 번째,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의 물건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좋은 말 착한 말 바른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구들과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를 받아 지니고 늘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스님들은 수계 어린이들을 위해 관정과 삼보륜 도장을 찍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증명했다. 전계대화상 원허 스님은 "어린이들이 계를 받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미래에 어렵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순간을 기억하고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른다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다"고 축원했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4회 삼귀의계 · 오계 수계대법회'를 11월 28일 오후 3시 부산 벡스코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쌍계사, 개산 1297주년 기념법회

10월 8일, 화엄경약찬가 수행으로 개산 의미 기려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영담)가 10월 8일 대웅전 및 경내 일원에서 개산129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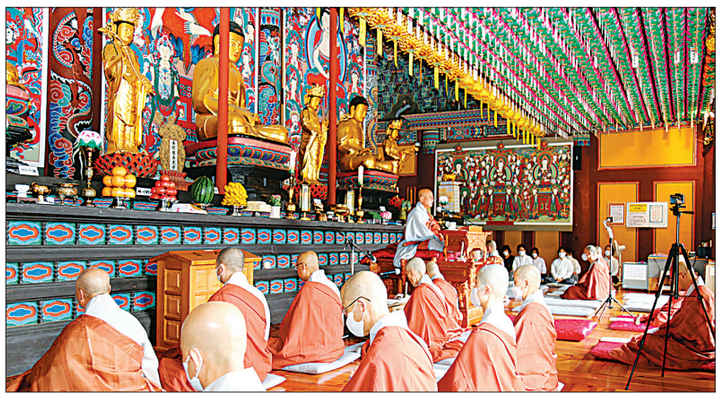
법회에는 주지 영담 스님, 옥천사 종성 스님, 용화사 종묵 스님, 대성암 승원 스님(염불원장)을 비롯해 대중 스님이 동참했으며 △삼귀의례 △청법3배 △입정 △법문 △대방광불화엄경 고산화상 약찬가 독경 △영반 △사홍서원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영담 스님은 "시방세계 모든 여래가 진여의 세계에서 오셨고 초발심을 찬탄하셨다. 초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우주의 모든 사물과 일은 혼자 일어나는 일이 없다. 모두 시간과 공간속에서 함께 공유한다. 이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 개산을 기념하고 화엄경약찬가를 독송한다. 수승한 보리심의 도를 아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쌍계사는 성덕왕23년(724)에 개산했고 문성왕 2년(840) 진감 혜소 선사가 창건했다.

개산을 기념하며 고산 스님이 〈화엄경〉을 노래형식으로 요약한 화엄경약찬가를 일주일 동안 독송한다. 이번 개산을 기념하기 위해 쌍계사는 산사음악회, 학술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으나 코로나 19 확산예방을 위해 취소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쌍계총림 쌍계사가 10월8일 대웅전 및 경내 일원에서 개산129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불조혜명의 참주인, 영축산人展' 개최

통도사 성보박물관 10월 9일~24일
통도사 스님 33인, 사진과 한담 공개

통도사에서 수행하고 중생들의 나침반이 되어 준 스님들의 사진과 인터뷰를 소개하는 전시가 열렸다.

월간 ·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대표 김윤희)는 10월9일부터 24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 2층 제2전시실에서 '불조혜명(佛祖慧命)의 참주인, 영축산인전(靈鷲山人展)'을 개최한다.

전시는 김윤희 대표가 20여 년 동안 인터뷰하고 엮어낸 결과들로서 월하 스님, 경봉 스님, 태흥 스님, 명정 스님을 비롯해 역대 주지 스님 등 통도사 스님 33인의 삶과 수행의 기록을 선보인다.

10월 9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전계사 혜남 스님, 前 주지 정우 스님, 前 유나 영일 스님, 박물관장 송천 스님 등 대덕 스님이 참석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통도사에서 준비해야 할 일을 맑은소리맑은나라에서 해주었다"며 "이렇게 한눈에 스님들의 수행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월간 ·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는 10월9일부터 10월24일까지 통도사 성보 박물관 2층 제2전시실에서 '불조혜명의 참주인, 영축산인전'을 개최한다.

김윤희 대표는 "20년 넘게 스님들을 취재하면서 묶어두었던 소중한 내용들이다. 전시를 통해 스님들께 받은 사랑을 사부대중에게 회향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책으로도 출간할 예정이다. 책에서는 더 많은 내용과 더 많은 스님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함월산 백양사
주지 지은산옹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백양로67(상안동)
Tel 052)243-8712 Fax 052)243-1142
e-mail : hws1142@daum.net